

OTT 공세에 흔들린 IPTV... 통신3사, AI로 재도약 모색

AI 맞춤형 서비스로 새 국면

KT, 콘텐츠 분석·추천 서비스 강화
SKB, 모션인식 등 새로운 경험 제시
LG헬로비전, 초개인화 서비스 제공

최근 몇 년간 인터넷(IP)TV 시장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통신3사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혁신으로 새로운 돌파구 마련에 나서고 있다. 통신3사 측은 AI 기술을 전면 도입하고, 맞춤형 콘텐츠 추천과 사용자 경험 강화를 내세워 시장 파이를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한때 통신사의 주요 수익원이었던 IPTV 사업은 최근 몇 년간 OTT의 성장과 코드커팅 현상으로 성장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코드커팅은 소비자가 기존 유료방송 서비스를 해지하고 OTT 서비스를 선택하는 현상으로, '케이블 선(cord)을 자른다(cutting)'는 데서 유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유료방송 이용자의 37%가 OTT 서비스로의 전환을 고려하고 있으며, 글로벌 OTT 시장은 2024년 약 23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반면 IPTV 시장은 성장세가 둔화되며 통신3사의 매출 증가율이 1% 미만으로 둔화된 상태다.



김훈배 KT 미디어 플랫폼 사업본부 전무가 5일 서울 중구 노보텔 엠베서더 서울 동대문에서 열린 세계 최초 8K AI IPTV '지니 TV 셋톱박스 4' 출시 기자회견에서 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과거 통신3사의 IPTV 사업은 2017년 처음 손익분기점을 넘긴 뒤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며 통신사들의 주요 수익원으로 자리 잡았고, 4년 전에는 성장률이 10%에 육박했다. 그러나 성장률은 1% 미만으로 떨어진 상황이며, 올해 2분기 실적에서도 이러한 둔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분기 IPTV 매출이 전년 대비 0.5% 증가한 4770억 원을 기록했으며, KT는 5226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0.9% 증가했지만, LG유플러스는 3349억원으로 동기 대비 0.6% 감소했다.

◆통신3사 IPTV, 일제히 AI 적용... 차별화 전략은?

이러한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통신3사는 AI 기술을 도입하며 차별화된 사용자 경험(UX)과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내세워 회복에 나서고 있다.

KT는 IPTV 업계 최초로 AI 기반 콘텐츠 분석 및 콘텐츠 생성 솔루션 '매직 플랫폼'을 출시했다. 지난 5일에 출시한 '지니 TV 셋톱박스 4'는 시청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학습해 사용자의 선호도를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최적화된 콘텐츠를 추천한다. 특히, 'AI 글로벌 기 기능'을 통해 프로그램에서 원하는

인물이나 장면만 빠르게 찾아볼 수도 있다. 긴급 재난 방송 시 AI 휴먼이 실시간으로 수어 통역을 제공한다. KT 관계자는 "특히 AI 수어 기능은 청각장애인 등 정보 소외 계층에게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IPTV 셋톱박스에 8K UHD 칩셋을 탑재해 이용자에게 생생한 콘텐츠를 전달한다.

SK브로드밴드는 SK텔레콤의 생성형 AI '에이닷'을 Btv에 적용해 대화형 콘텐츠 탐색 서비스를 선보였다. 'AI 대화형 탐색 서비스'는 단순 검색을 넘어 추천 콘텐츠와 그 이유까지 제시한

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해리포터와 비슷한 영화를 추천해줘"라고 요청하면, AI가 비슷한 영화뿐만 아니라 추천 이유까지 제공한다. 또, AI 셋톱박스 'AI 4 Vision'을 출시해 업계 최초로 4K를 지원하는 13M 픽셀 카메라를 탑재하는 등 사용자 경험 강화에 나섰다. 이 셋톱박스는 AI 모션 인식 기능을 통해 홈 트레이닝과 모션 게임 등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LG헬로비전도 LG유플러스의 AI 기반 에이전트 '익시(ixi)'를 도입해 초개인화된 'U+tv'를 선보였다. AI 큐레이션, 실시간 자막 위치 조정, AI 음성챗봇 등 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한 기능들을 도입했다. 특히 국내 최초로 24시간 음성 기반 고객 상담 서비스를 도입해 사용자가 IPTV 사용 중 겪는 불편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박찬승 LG유플러스 유니버스 그룹장(상무)은 "미디어 에이전트가 당장의 수익화를 위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AI로 당장 IPTV가 수익을 내기는 쉽지 않겠지만 시청 환경이 개선되면 코드커팅 현상을 조금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활용 못했던 데이터, AI로 새 시대 연다”

엔비디아, 2025년 AI 혁신 전망 데이터 활용·소형 언어 모델로 진화 생성형 AI·LLM, 산업별 맞춤형 혁신

엔비디아(NVIDIA) AI 전문가들은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지능형 매장, 새로운 로봇, 의료, 제조 등 분야에서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 것이라 예측했다.

엔비디아가 23일(현지시간) 2025년 AI가 가져올 혁신적인 발전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전망은 방대한 데이터의 활용이 핵심을 이룬다. 산업계는 방대한 데이터를 축적했으나 대부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데이터의 양은 120ZB(제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전 세계 모든 해변에 있는 모래알의 120배가 넘는 양이다. 그러나 생성형 AI의 대중 공개 이



엔비디아가 23일(현지시간) 2025년 전망을 내놓았다. /엔비디아

후 AI의 급격한 발전과 거대언어모델(LLM)이 방대한 데이터를 다룰 수 있게 되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

엔비디아 관계자는 "2025년이 다가오면서 의료, 통신, 엔터테인먼트, 에너지, 로봇틱스, 자동차, 소매업과 같은 산업들은 이러한 모델을 사용해 자사의 독점 데이터와 결합하고, 추론할 수 있

는 AI를 개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옛지에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거의 즉각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AI가 가까운 병원, 공장, 고객 서비스 센터, 자동차, 모바일 기기에 도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주목할 지점은 로봇틱스와 에너지 분야다. AI는 물리적 세계에서도 점차 역할을 확대하며 로봇 시스템과 산업용 기기의 비용을 대폭 낮출 것으로 보인다. 로봇의 경제성 향상은 산업 전반에 걸쳐 로봇 보급을 가속화할 것이다. 특히, 소형 언어 모델(sLM)의 도입은 옛 컴퓨터에서 AI의 성능을 향상시켜, 자동차와 첨단 로봇틱스 등의 다양한 산업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산업의 AI는 스마트 그리드를 구축하고, 전력망 최적화 및 청정에너지 채택을 가속화할 것이다.

/김서현 기자 seoh@

‘익시오’ 출시 10일 만에 다운로드 10만건

LGU+, 일평균 5000여건 누적

LG유플러스는 자사 인공지능(AI)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ixi-O)'가 출시 열흘 만에 다운로드 10만건을 돌파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7일 출시된 '익시오'는 ▲보이는 전화 ▲전화 대신 받기 ▲실시간 보이스피싱 감지 ▲통화 녹음·요약 등 기능을 온디바이스 환경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다. 아이폰14 이상 단말기를 사용하는 LG유플러스 고객이라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익시오는 출시 10일 만인 지난 16일 기준으로 다운로드 건수 10만건을 넘었다. 일평균 5000여건의 다운로드가 누적되고 있어 올해 안에 30만 다운로드를 달성할 전망이다.

익시오는 출시 첫날 앱스토어 모든 앱 부문 차트에서 다운로드 1위를 기록

했다. 익시오를 주제로 제작한 유튜브 광고 영상도 공개 15일만에 누적 조회 수 200만회를 기록했다.

익시오 이용 고객 사용 패턴을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은 아이폰 통화 녹음·요약으로 나타났다. 익시오 이용 고객 10명 중 3명은 음성 통화 내용을 AI가 즉시 텍스트로 변환해 보여주는 '보이는 전화'를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익시오는 통화내용을 실시간으로 분석해 보이스 피싱 의심 전화로 판단할 경우 고객에게 알람을 보내는 '보이스 피싱 감지' 기능도 탑재했다. 익시오는 출시 2주 동안 6000여건의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감지했다.

LG유플러스는 더 많은 고객이 익시오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

KT, 테라급 전송망 시범 적용 성공

차세대 통신 속도 2배 향상

KT가 국내 통신사 중 처음으로 서울과 부산, 천안을 연결하는 백본망에 테라급 속도의 전송망을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데 성공했다고 24일 밝혔다.

백본 네트워크는 모든 통신망의 기본 인프라로 통신 서비스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KT는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발전과 글로벌 콘텐츠 수요 증가에 대비해 백본 네트워크

성능을 강화해 왔다.

KT는 테라급 전송망으로 서울과 부산 간 장거리 구간(530km)에서 1.2테라비피에스(Tbps), 서울과 천안 사이의 중거리 구간(110km)에서는 1.6Tbps 속도로 데이터가 안정적으로 송수신되는 것을 확인했다.

KT는 이번 실증을 위해 '코히어런트(Coherent)' 기술, 가변 파장 전송 방식 등 대용량 전송을 돕는 기술을 고도화해 백본망에 적용했다.

/이혜민 기자

KT는 테라급 전송이 도입되면 수도권 데이터센터 간 데이터 전송 속도는 기존 대비 약 2.6배, 전국적인 백본 네트워크 속도의 경우 약 2배 향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KT는 내년 상반기 중에 테라급 중장거리 전송망을 적용한다.

KT는 백본 네트워크 성능 향상이 전체 통신망 유연성을 높여 다양한 고객 수요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한다며 클라우드와 같이 큰 대역폭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경쟁사보다 더 빠르고 높은 품질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엘솔루, 캄보디아 IDRI와 AI 공동연구 착수

크메르어 음성인식·기계번역 개발

인공지능(AI) 기술 기업 엘솔루(구 시스트란 인터내셔널)가 지난 13일 캄보디아 디지털 기술 연구기관인 CADT 산하 IDRI와 크메르어 AI 기술 혁신을 위한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IDRI는 캄보디아의 최초의 디지털 기술 연구개발 기관으로, 국가 산업과 정부 부처에 다양한 AI 기술을 공급하고 있다.

양측은 지난 6월부터 협력 방안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차세대 크메르어 음성인식 및 기계번역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엘솔루의 음성인식 시스템 AI Transcribe 과 기계번역 시스템 ezNTS를 IDRI의 AI 기술과 결합해, 세계 최고 수준의 크메르어 AI 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캄보디아 정부와 글로벌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AI 기술과 제공할 계획이다.

/이혜민 기자